



비료와 식량

2024년
2월호



1. 회원사 동정
2. 협회 주요 활동
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 보도 동향
4. 농정 이슈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6. 무기질비료 상식
7. 이달의 주요 인사
8. 회원사 제품 소개



한국 비료 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출처 : 농어촌공사 농촌경관사진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1 회원사 동정

□ 남해화학(주)

○ 농협경제연구소, 「사업추진 전략 워크숍」 개최

- 농업·농촌 발전 위한 신규 연구과제 발굴 및 부서 발전방안 의견수렴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2일 경기 고양시 농협대학교 대강당에서 이종욱 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사업추진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 고령화, 농촌인력 부족 등으로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농업생산비 상승 등 농가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안정 방안 등 농업·농촌 지원을 위한 2024년 신규 연구과제 및 사업 발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신규 연구과제 및 사업 발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소 역량을 높여 나가자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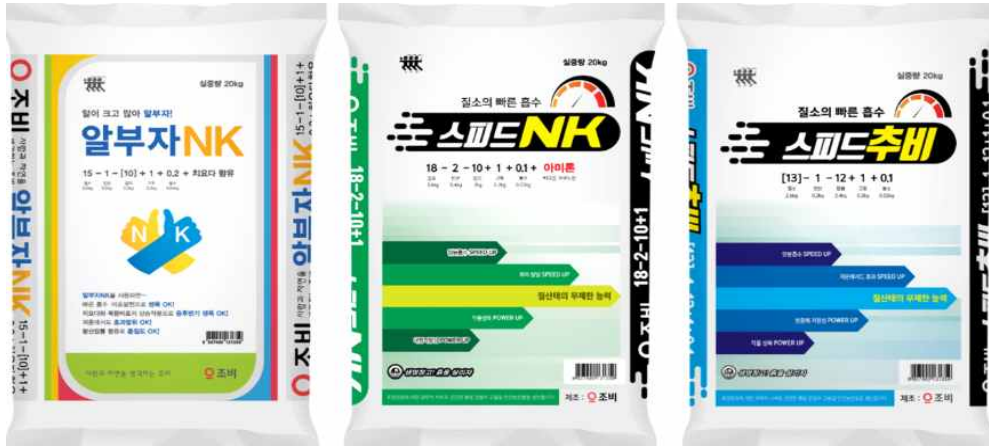
이종욱 소장은 “올해도 농업·농촌이 당면한 주요현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연구성과를 높이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범농협 사업추진의 등대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자”고 말했다.

※ 농협중앙회(2024.2.5.)보도자료 인용

□ (주)조비

○ 웃거름 비료 선보여...“균일하게 양분 공급하고 생육 촉진·수확량 제고”

- 알부자NK·스피드NK·스피드추비



조비가 겨우내 위축된 작물의 회복을 돕는 다양한 웃거름 비료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알부자NK’는 질소·인산·칼륨을 적절하게 배합한 비료로, 작물에 비료 성분을 균일하게 공급한다. 효과가 빠른 기능성 성분, 치요다와 복합비료의 상승작용으로 작물 생육, 수확량 증대,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치요다는 토양 내 침투 이행성과 흡착성이 높은 물질이며 속효성으로 양분 흡수와 비료 효과 발현이 빠르며 저온에서도 우수한 효과를 발휘한다. 또 알부자NK는 작물 중·후반기에 양분을 균형 있게 공급, 비료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유허(황산 칼리)을 함유해 작물의 맛과 향, 색 등의 품질 향상과 저장성 증진, 신선도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또 다른 제품인 스피드NK는 비료의 필수 3요소(질소·인산·칼륨)와 함께 고토와 붕소를 적절하게 배합해 작물에 비료 성분을 균일하게 공급하고 작물의 잎과 줄기 생육에 효과적이다. 작물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질산태질소도 함유해 저온기에도 빠르게 효과를 발휘, 수세 회복에 도움을 준다. 여기에 양이온 흡수를 도와 작물의 생리장애 예방과 품질 향상을 돕고 이 제품에 함유된 아미톤은 뿌리 생육을 증진시켜 질소 유실 최소화, 양분 이용률 상승 등에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피드추비는 비료의 필수 3요소와 고토, 붕소 성분을 적절하게 배합한 제품이다. 이 제품에 함유된 질산태질소는 양이온 흡수를 도와 작물의 생리장애 예방과 품질 향상을 돕는다.

※ 한국농어민신문(2024.2.2.)기사내용 인용

□ (주)팜한농

○ 고품질 황질소 비료 통한 차별화로 국내 시장 업그레이드



(주)팜한농(대표 김무용)과 에이치설퍼(주)는 지난 1월 15일 에이치설퍼(주) 본사에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질소 비료 사업협력 및 공동마케팅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농업 분야 유통 제품 마케팅을 위한 연구·기술정보의 교류, 시험재배, 홍보 자료 및 콘텐츠 제작, 대관 인허가 및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 에이치설퍼(주)는 해외 시장에 집중하고 국내 시장은 (주)팜한농이 맡아서 운영하게 됐다.

에이치설퍼(주) 유선경 대표는 “현재 황질소 비료는 세계 1위의 비료회사 및 글로벌 기업에 공급되고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로 수출되어 글로벌 농업인들에게 그 품질과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글로벌 회사가 요구하는 품질, 공급조건, 작물효과 및 유해물질 규제, 탄소 저감 등 엄격한 국제 기준에 맞게 생산된 고품질 비료”라고 강조했다.

팜한농 김무용 대표는 “팜한농은 현재 Green Bio 사업을 기업의 미래 핵심가치로 여기고 많은 투자를 진행해 왔다”며 “국내 최초 광분해 완효성 비료인 ‘에코몰라’와 PAA(뿌리 발육 아미노산) 함유 비료인 ‘뿌리조은’ 등을 개발한 노하우에 에이치설퍼의 황질소 제품을 더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현해남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는 황질소 비료와 관련해 ▲국내 원예 작물 재배 특성상 황 요구도가 높고 ▲토양을 덜 산성화시키면서도 지효성을 갖는 미세 황 비료가 국내에도 공급되고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전량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내 비료산업에서 순수 국내산 원자재가 복합비료 원료로 사용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했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원소황 원료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생산한 미세황 황질소 비료의 안전성과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현해남 교수는 “황질소 비료는 50 μ m 내외 크기의 미세 황이 1kg에 약 1조 5천억 개 들어 있고 이 미세한 황이 토양에서 분산되어 티오 바실러스(Thiobacillus) 등의 미생물에 의해서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이온 형태로 서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토양 산성화 우려나 작물에 대한 피해 걱정이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은 작물 생육에 필수적인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과 더불어 6대 원소 중 하나다.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를 제외한 질소, 인산, 가리 등 모든 비료 원자재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 반면에 황은 황질소비료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농기자재신문(2024.2.1.)기사내용 인용

□ (주)풍농

○ 유황, 칼슘함유로 대박농사! 엔피코 "썰파원에플러스"

- 유황, 황산칼륨 다량함유 고품질 원예, 과수 생산용
- [프리미엄기능성비료][썰파원에플러스] 유황·칼슘함유 품질향상 !
- 맛, 당도, 때깔, 저장성 향상 !, 고품질농산물 수확 대박농사 !



2024년 주식회사 풍농은 고품질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신제품 프리미엄기능성비료 "썰파원에 플러스(13-7-10+2+0.2+유황 18·칼슘함유)"를 출시하여 원예, 과수재배 농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썰파원에플러스는 질소, 인산, 칼리, 유황, 칼슘, 고토 등 필수 다량원소와 붕소 등 미량성분 함유 밀거름으로 작물생장에 필요한 양분을 균형있게 공급하여 양분흡수효과가 뛰어납니다.

썰파원에플러스는 특히 관행비료 대비 유황, 황산칼륨, 칼슘 등 기능성양분 공급 기능이 강화되어 고추, 감자, 배추, 마늘, 양파 등 원예작물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 과수류 재배 사용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썰파원에플러스는 작물생육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1석 2조의 효과로 농가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밭작물(노지 고추기준) 밀거름 4~5포(300평당) 사용만으로 작물에 필요한 적정 유황 필요

량이 공급되어 유통공급을 위해 유통비료의 별도 구매, 시비가 필요없어 노동력 및 비용절감 등 농가경영비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공인기관 시험결과(마늘) 관행구 대비 초장 2%, 줄기직경 4% 생육우수, 구고 6%, 구경 5% 주당구중 7% 수량평가요소 우수, 수확량 10% 증수 등 작물생육향상, 증수효과가 입증된 제품으로 주력 농산물 경쟁력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예류 70~100kg/10a, 과수류 60~120kg/10a으로 시비후 토양과 고루 섞이도록 전층시비 사용시 사용효율이 뛰어납니다.

※ 풍농 자료 인용

2 협회 주요 활동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TWG 1차 회의 참석(1.25, 서울역, 국립환경과학원 주최)
 - 내용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Ⅱ)”의 개정심의(안) 마련을 위한 의견 논의
- FAO 한국협회 소위원회 회의 참석(2.6, 안양)
 - 내용 : 정기총회 및 이사회 대비 안건 사전 검토
- 기후대응기술 실증·인증제도 마련 검토회의 참석(2.14, 서울역, 농식품부 주최)
 - 내용 :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내 설립 예정인 인공기상동, 이상기후 실증동의 종자·비료·농약 등 민간업계 활용 방안 논의
- K-라이스벨트 사업 설명회 참석(2.15, 서울 더케이호텔, 농식품부 주최)
 - 내용 :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용역사, 농기계, 비료, 농약등 관련 민간기업 및 협회의 아프리카 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설명
- 농식품부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 추진
 -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안내(2.8.)

- 협회 원료구입자금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자금배정 기준 공고*(2.13.)
* 4,000억원, 고정금리 3% 또는 변동금리
- 원료구입자금 사업심사위원회 개최(2.22, 협회)

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보도 동향

【 국 내 】

□ (통계청)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8.7(2020년=100)로 전년대비 0.9% 상승

- 축산물(-7.0%), 기타농산물(-2.3%)은 하락한 반면, 청과물(10.9%), 곡물 (2.0%)은 상승

○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2020년=100)로 전년대비 0.3% 상승

- 재료비(-3.0%), 경비(-4.4%)는 하락한 반면, 가계용품(3.5%), 노무비(7.5%)가 상승

▶ 전년대비 상승폭이 큰 주요 품목은 식료품·비주류음료(5.2%), 노무비 (7.5%), 사료비(2.3%), 농약비(12.0%), 기타 상품 및 서비스(6.2%) 등임

△ 재료비 : 사료비(2.3%), 농약비(12.0%)가 증가, 비료비(-22.0%)가 하락하여 전년 대비 3.0% 하락

○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0.2(2020년=100)로 전년대비 0.7% 상승

- 농가판매가격지수(0.9%)가 농가구입가격지수(0.3%)에 비해 상승폭이 높아 농가교역 조건지수는 전년대비 0.7% 상승

〈재료비지수 및 전년대비 추이〉



<농가구입가격지수 주요 등락 품목>

(전년대비, %)

구분	등락률	주요 등락 품목
가계용품	3.5	식료품·비주류 음료(5.2),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5.2)
재료비	-3.0	비료비(-22.0), 사료비(2.3), 농약비(12.0)
노무비	7.5	여자(8.0), 남자(6.1)
경비	-4.4	영농광열비(-13.9), 임차료(7.0), 판매자재비(3.5)
자산구입비	-1.0	가축구입비(-5.7), 기계구입비(0.9)

※ 통계청(2024.1.26.)보도자료

□ 2023 농산업 수출실적 희비...농기계 ‘뒷걸음’ 농약은 ‘껑충’

지난해 농산업 수출실적은 29억7700만 달러로, 2022년(29억4200만 달러) 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산업 수출 실적에서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농기계 수출 실적이 10% 이상 줄어든 반면 농약과 스마트팜 수출액은 2022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며 눈길을 끌었다.

북미 소형트랙터 수요 주춤, 농기계 전년비 12.2% 감소

비료도 24.8% 줄었지만 스마트팜·농약 두 배 이상 증가

▲ 산업별 명암 엇갈린 수출 실적=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산업 수출 분야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023년 농기계 수출은 전년대비 약 12.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2년 17억4200만 달러였던 농기계 수출실적은 지난해 15억3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농기계 수출 시장은 북미시장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북미지역에서 급증한 하비 파머(취미로 농사를 짓는 사람) 여파로 국내 소형 트랙터의 수요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종식 후 이에 대한 수요가 주춤하면서 실적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료 수출액은 2022년 5억8900만 달러에서 2023년 4억4300만 달러로 감소했다. 1년 만에 무려 24.8% 급감한 것이다. 주요 수출품인 복합비료의 수출물량이 9.4% 증가하는 등 비료의 수출물량은 2022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지만 지난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비료 가격도 내려가면서 수출액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스마트팜과 농약의 수출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수출은 2022년 1억3700만 달러에서 2023년 2억9600만 달러로, 116.1% 증가했다. 정부가 스마트팜 수출을 위해 중동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주도적으로 진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에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2023년 스마트팜 수출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성장했

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농약 수출 실적은 4억990만 달러로 2022년(2억4600만 달러) 보다 102.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국내 기업(팜한농)이 자체 개발한 제품으로 남미(브라질) 시장을 개척한 데 힘입어 2배 이상 신장했다고 밝혔다.

농산업 수출 실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종자 수출액도 전년대비 200만 달러 늘어난 5800만 달러로 확인됐다. 판매 단가와 물량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나, 중국 시장으로 진출한 한 기업의 성과로 수출 실적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농산업 수출 '35억 달러' 목표, 3개 사업에 60억원 투입 계획

▲ 정부의 2024년 수출활성화 방안은? = 농식품부는 올해 농산업 수출 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두 개의 내역사업(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과 수출정보 지원)으로 구분해 추진했지만 올해부터는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과 농산업 판로개척 및 정보 제공,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등 3개 내역 사업으로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총 예산은 60억3100만원으로,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 10억5000만원, 농산업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21억3800만원,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28억4300만원을 각각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농기자재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기자재 국제 인증, 해외 인허가와 제품 등록을 지원하고 제품 등록과 인허가 취득에 필요한 제품 개선비용 지원 등에도 나선다. 여기에 기업과 제품 홍보 마케팅도 돕는다.

농산업 판로 개척 및 정보 제공을 위해 해외 박람회와 로드쇼 지원, 시장 개척 현장조사단 운영, 비즈니스 수출 상담회 개최,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수출 정보 제공 기능 강화, 네트워크 지원 및 성과 확산 등을 추진한다.

※ 한국농어민신문(2024.2.2.)기사내용 인용

【 국 외 】

□ "보조금 달라" 베를린서 트랙터 시위... '극우 가세' 논란

〈앵커〉

독일에서 정부의 보조금 삭감에 격분한 농민들이 일주일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트랙터를 몰고 수도 베를린 한복판까지 들어와 있는데, 극우 정치 세력이 시위를 부추기고 있던 의혹이 불거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 광장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트랙터 수천 대가 줄지어 멈춰 서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독일 농민들의 시위 현장입니다.

지난 8일 시작된 시위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며, 반정부 투쟁 움직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시위 농민 : 에너지 위기 때문에 타격이 큼니다. 비료 값도 두 배로 올랐고, 농약 값도 올랐습니다.]

놀란 독일 정부는 차량세 할인을 재도입하고 농업용 경유 보조금 삭감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며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SBS 뉴스 (2024.1.17.)기사내용 인용

□ 홍해 막히고, 이·팔 전쟁 장기화...공급망 독립 가능할까

○ 이스라엘, 하마스에 지상전 예고...홍해 물류대란 장기화

○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최대 위기...운송비용 급상승

○ 글로벌 네트워크 다변화...경제안보 관점 전략 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본격 지상전으로 확산한 가운데 홍해 인근 군사 충돌로 인해 글로벌 물류 대란이 길어지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흔들리며 공급망 위기 선례를 겪었지만,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지상으로 번지면서 홍해 물류 사태도 장기화되고 있다. 당초 이·팔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진 않았다. 문제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철수를 명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홍해 인근 상선들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후티 반군은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 상선들을 향해 미사일 등을 쏘며 무력 공격을 감행했고, 이에 맞서 미군도 대대적인 폭격으로 반격에 나선 상황이다.

홍해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통적인 해상 운송 요충지로 꼽힌다. 중간재 수출을 주력 산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자동차와 배터리 등을 싣고 지름길인 홍해를 이용해 유럽으로 이동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홍해가 막힐 경우 운송 비용 상승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후티 반군의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홍해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결국 홍해와 연결된 수에즈 운하 이용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최남단인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해상 운송 물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홍해 통로가 막히게 되면 글로벌 운송 비용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의 빈센트 클레스크 회장은 지난달 다보스 포럼에서

"홍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초래하는 공급망 혼란은 몇 달간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해 물류 대란 영향으로 인해 운송 예측 가능성이 깨지면서 운항 일수의 급작스런 증가 등 공급망 병목 현상이 발생, 현장에서 재고 부족 등 이유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엔 원자재와 함께 저임금 노동력 공급 등을 담당했던 중국이 멈추면서 전 세계가 공급망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미·중 패권 갈등 심화 속에서 코로나발(發) 공급망 위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대(對) 중국 의존도 관련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팬데믹 이후에도 미·중 중심의 경제 블록화가 가속되면서 각국은 공급망 안정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기업들이 '비용'을 최우선 순위에 뒀다면 지금은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국이다.

홍지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공급망 위기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닌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하고 있다"며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비용을 최우선으로 공급망을 설계했지만, 팬데믹 이후엔 다른 개념들이 발생하는 등 기존 공급망 체계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도 지난해 말 중국발(發) '제2의 요소수 사태' 직면 위기를 겪은 후, 본격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는 지난해 말 경제 안보 품목의 공급망 관리 역할을 규정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법)을 의결했다. 흑연과 희토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해 2030년까지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산업 공급망 3050전략'을 전면내 내걸고 후속 조치도 진행 중이다. 표면적으로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중국 의존도를 더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팬데믹 사태 이전과 이후 세계적인 분위기, 글로벌 돌발 변수 등을 감안하면 공급망 이슈는 비용 논란을 넘어 안보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소재와 부품 등 공급망 이슈가 중요한 국가"라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비축 정책 등 단계적이고 정책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노컷뉴스(2024.2.12.)기사내용 인용

4 농정 이슈

【 국 내 】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제25대 농협중앙회장에 강호동 후보 당선

제25대 농협중앙회 회장에 강호동 후보가 당선됐다.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지역 농·축협 및 품목조합의 조합장 등 선거인 1111명 중 10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총회에서 2차 투표까지 이어진 끝에 강호동 후보가 전체 유효 투표권 수 1247표 중 781표를 얻어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됐다.

강호동 당선인은 농협중앙회 이사, 농협경제지주 이사, 농민신문사 이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울곡농협 조합장, (사)한국 딸기 생산자 대표조직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농협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이끌어 왔다.

강 당선인은 앞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 △품목농협 전문성 강화 △교육지원 부문을 '농·축협 총력지원센터'로 혁신 △농협금융의 정체성 확립으로 '범농협 수익센터' 위상 정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강호동 회장 프로필 〉

▶ 학력

- 대구미래대학 세무회계과 졸업
- 농협대학 협동조합경영대학원 수료
- 농협대학 협동조합경영대학원 최고전략과정 수료

▶ 경력

- (현) 울곡농협 조합장
- (전) 농협중앙회 이사
- (전) 농협경제지주 이사
- (전) 농민신문사 이사

※ 보건의뉴스(2024.1.26.)기사내용 인용

□ 올해 농가소득, 4970만원 될 듯...농업소득은 1150만원 전망

2024년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2.8% 증가한 4970만원으로 전망된다. 비료비 등 투입재비 구입 가격지수 하락으로 농업경영비가 감소한 가운데 농업직불금 등 이전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클 것 이란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이하 농경연)은 지난 1월 25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2024 농업전망'을 개최했다. 농업전망은



농업인 포함 농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내외 환경변화 동향을 분석·전망하고, 올해 농업·농촌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서 올해 27회째를 맞았다.

투입재비 구입가격지수 하락·농업직불금 확대 등 영향

김미복 농경연 농업관측센터장은 ‘2024년 농업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농가소득은 497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소득은 농업경영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전년보다 7.7% 늘어난 1150만원이 예상된다. 올해 비료비와 영농광열비 등의 투입재비 뿐만 아니라 사료비 등의 구입가격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 호당 농가경영비가 전년보다 2.5% 감소해 올해 경영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호당 농가경영비는 2480만원. 여기에, 농업직불금 등이 더욱 확대되면서 이전소득이 1620만원으로 2023년 대비 2.1%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농가소득 전망치에 반영됐다. 2023년 호당 농업소득은 1070만원으로 1000만원대를 회복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생산액은 59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0.6% 증가할 전망이다. 우선 재배업의 경우 전년 대비 0.8% 증가한 34조원이 예상된다. 식량작물 생산액은 생산량 감소로 인해 약보합이 예상되고, 채소 생산액은 농가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낮아져 1% 감소, 과실은 지난해 작황부진을 회복해 전년보다 5.7%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마주한 현실이 그리 녹록하지 않고, 미래의 변화 방향과 속도를 예단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논의 주제인 ‘불확실성 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는 현장과의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아 농업인과 국민의 뜻을 귀담아 듣고, 문제를 즉각 해결해 국민이 바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한국농어민신문(2024.1.26.)기사내용 인용

□ (통계청)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가구부문

2023년 1인당 연간 양곡(쌀 + 기타양곡) 소비량은 64.6kg으로 전년대비 0.2%(0.1kg) 감소 - 쌀 소비량(56.4kg)은 전년대비 0.6% (0.3kg) 감소, 기타양곡(8.2kg)은 2.8% (0.2kg) 증가

○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8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30년 전(‘93년 122.1kg) 대비 절반 수준임

* 1인당 양곡 소비량(kg) : (‘20) 66.3 → (‘21) 65.0 → (‘22) 64.7 → (‘23) 64.6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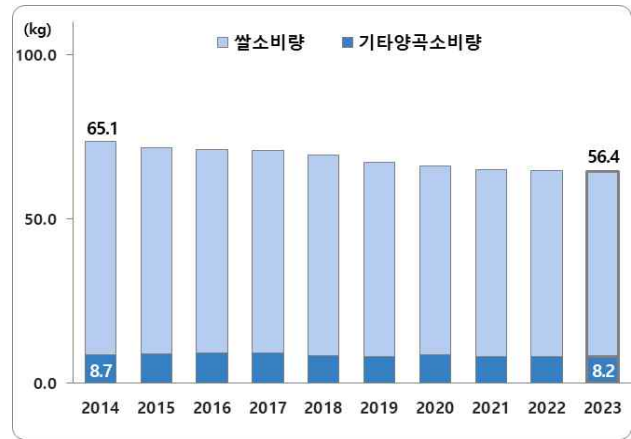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비료와 식량 -2024년 2월호-

* 1인당 쌀 소비량(kg) : ('20) 57.7 → ('21) 56.9 → ('22) 56.7 → ('23) 56.4

* 1인당 기타양곡 소비량(kg) : ('20) 8.7 → ('21) 8.2 → ('22) 8.0 → ('23) 8.2



사업체부문

제조업(식료품 및 음료)부문 쌀 소비량은 81만 7,122톤으로 전년대비 18.2%(12만 5,700톤) 증가

※ 통계청(2024.1.26.)보도자료

□ 식량종자검사 받을 때 ‘유전자분석 필수’

앞으로 주요 식량작물 종자 검사 시 유전자 분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자검사요령’을 지난 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자 순도 관리 강화, 식량 종자 품위 향상 등을 위해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종자를 검사할 때 유전자분석을 필수 검정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 다만 개선된 검정 체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필수 검증 대상을 연도별·작물별로 확대 도입한다. 올해는 벼 상위 단계가 대상이고, 내년에는 벼 보급종, 2026년엔 밀·콩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이번 종자검사요령 고시 개정 시 씨감자 시료 채취 방법 개선, 가루쌀 메성 출현을 검정 방법 보완 등도 포함했다. 씨감자 시료 채취 방법을 개선한 것은 농정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감자 보급종을 생산하는 강원도 채종포 농가들이 대용량 포장으로 종자를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어 씨감자 종자 검사 시 포장(주입)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소포장 단위 외에 대포장 단위 검사도 가능하게 됐다.

※ 한국농어민신문(2024.2.8.)기사내용 인용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국 외 】

□ 프랑스 농민시위 확산...농산물 가격 지지·규제완화 요구

농산물 가격 지지와 환경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프랑스 농민들의 시위가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민들은 프랑스 전역의 여러 도로에서 차단막을 치고 정부에 분노를 표시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프랑스 남서부의 성난 농민들이 건조 더미와 페타이어에 불을 지르고 지방행정 건물에 거품을 뿌리면서 분노를 표시하는 등 시위는 점차 과격해지는 양상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농민들은 정부와 유통 업체의 식품가격 상승 억제 정책으로 에너지, 비료, 수송비 등 비용 부담 증가, 경유에 대한 면세 조치 철폐와 과도한 환경 규제, 값싼 외국산 농산물 유입에 항의하며 지난 18일부터 고속도로와 국도를 트랙터 등으로 막는 시위에 나섰다.

프랑스 남서부 카스텔노다리 지역의 청년농민조합 대표 토마스 보네는 "규제가 너무 많다. 우리는 이웃나라 농민처럼 생산, 경작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부 프랑스 농민들은 브뤼셀 유럽의회 본부 근처에서도 항의 시위를 했다. 한 농민은 "EU가 가혹한 기준을 우리에게 강요하는데도 우리 생산물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스트리아의 유럽의회 의원으로 농업과 양봉에 종사하는 토마스 바이츠는 "대부분 농민이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고 말하고 "EU의 녹색환경 정책으로 늘어난 작업과 비용을 농산물 가격에 반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U가 수입 농산물에도 높은 환경 규제 기준을 적용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EU가 우크라이나 농산물 쿼터와 관세를 철폐한 후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남미 국가와 EU간 무역 협상 재개로 설탕, 곡물, 육류 등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기 힘들게 되는 것을 우려한다. 경작지 4% 휴경 의무화 같은 EU의 환경 규제와 생물타리와 경작 가능한 토지를 자연생태지로 복원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불만을 표시한다.

※ 뉴스핌(2024.1.25.)기사내용 인용

□ “좌파들 때문에 농민 다 죽는다”...길 막고 폭탄 던진 유럽 농부들, 왜

- 독일 경유 보조금 삭감, 프랑스 면세유 폐지에 반발
- 동유럽은 우크라이나 농산물 덤핑에 도로 접거
- EU 친환경파, 화석연료, 농약사용 규제정책 나오자, 선거 앞두고 극우파 정치인들 농민 선동하기도

유럽 농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뿔났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지원금 삭감 때문에, 동유럽

은 우크라이나발 농산물 덤핑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극우파 정치인들이 “좌파들의 친환경정책으로 농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이 극우파에 기댄 농민들의 시위를 달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둔 우르술라 폰데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농업단체와 학계, 비영리기구 등과의 대화도 시작할 계획이다.

FT는 EU와 각국 정부가 예산문제와 친환경정책으로 농업 관련 규제책을 내놓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값싼 해외 농산물을 대량 수입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서유럽에서는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던 에너지비용 축소가 가장 큰 문제다. 독일은 예산삭감 여파로 농민들의 경우 보조금을 줄이기로 했고, 프랑스도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단계적 폐지안을 내놓았다.

저렴한 농산물을 생산해온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농민들도 분노하고 있다. 전쟁으로 수출로가 막힌 우크라이나가 밀과 설탕, 가금류 등 주요 농산물을 덤핑 수준으로 떠넘기고 있어서다. 판로를 잃은 동유럽 농민들은 트랙터로 고속도로 접경지를 막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를 통해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농산물을 수출해왔는데, 바닷길이 막히자 동유럽 육로를 통해 가까운 유럽으로 농산물을 대거 보내고 있다.

이 밖에도 농민들은 EU가 보조금을 명목으로 시행중인 경작지 4% 이상에 쉬는 기간을 강제하는 제도, 특정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 등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최대 농업단체 코파 코게파는 “탈탄소화에 이익을 제기하진 않지만, EU의 그린딜 정책은 파급효과 연구없이 하향식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FT는 유럽 전역의 농민시위는 각국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국산제품 공급에 힘쓰기보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생물다양성 보존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불만에서 촉발됐다고 진단했다. 친환경정책에 비판적인 극우파 정치인들은 이 틈을 파고들어 교묘한 여론전을 펴고 있다. 실제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프랑스 ‘국민연합(RN)’, 폴란드 ‘연방당’ 등이 농민들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 매일경제(2024.1.25.)기사내용 인용

□ 유럽 무역통로 봉쇄한 성난 農心...EU-남미 FTA도 '흔들'

- EU 친환경 정책·농산물 수익 계획에 불만 폭발, 농민들 "닭장 너비까지 규제"
- 獨·佛·벨기에 항구·도로 막아, "값싼 우크라 농산물 면세 제한"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 정책과 농산물 수입 계획 등에 반발하는 농민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와 각국 정부가 현장과 동떨어진 친환경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벨기에 일반농업인연합(ABS) 소속 농민들이 교역 허브인 벨기에 서북부 제브뤼헤항에 트랙터를 몰고 와 진입로를 막아섰다. 이들은 EU의 환경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최소 36시간 이상 농성하겠다고 예고했다.

독일 최대 항만인 함부르크항과 주변 시내에도 이날 농민들이 전국에서 몰고 온 수백 대의 트랙터가 교통을 방해했다. 니더작센주의 컨테이너항인 야데베저항과 북부 브레멘주 브레머하펜항 등 전국에서 트랙터 시위가 벌어졌다. 프랑스 농민들은 수도 파리 외곽 주요 간선도로에 트랙터를 세운 채 파리 교통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가 지난 26일 농가를 방문해 디젤 보조금 삭감을 철회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위는 계속됐다.

유럽 농민들이 일제히 시위에 나선 것은 EU의 친환경 정책으로 쌓여온 불만 때문이다. EU가 농업 부문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막는다며 2030년까지 질소비료 사용 감축, 휴경 의무화, 살충제 사용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한 탓이다.

EU가 추진 중인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유럽 각지의 농민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농업 대국이 주축이다. EU 농민들은 환경규제로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데, 규제를 받지 않는 남미에서 싼값의 농산물이 쏟아지면 속수무책이라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 한국경제(2024.1.31.)기사내용 인용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 최근 4년간 연도별 무기질비료 생산·출하 현황

(단위 : 천 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11월	2023년 11월
생 산 량	2,142	2,397	2,039	1,864	1,587
출 하 량	2,054	2,429	1,860	1,793	1,627*

* 전년 이월분 포함

※ 협회 회원사 기준(수출 포함)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비료와 식량 -2024년 2월호-

□ 최근 4년간 연도별 무기질비료 원자재 톤당 수입가격(달러) 및 환율

(단위 : \$,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요 소	281	307	366	597	868	650	469	429
암모니아	273	270	437	672	957	936	580	457
D A P	314	349	485	749	948	859	638	528
염화칼륨	312	274	271	363	633	965	533	346
환 율 (매매기준율)	1,207	1,154	1,117	1,171	1,232	1,351	1,295	1,317

※ 관세청 무역통계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6 무기질비료 상식

□ 유기질비료와 퇴비의 차이점

유기질비료와 퇴비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에는 부산물비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퇴비는 부속유기질비료로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가 있는데, 가축분퇴비는 가축의 분뇨를 50% 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2종이상 혼합하여 발효·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이며, 일반퇴비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2종이상 혼합하여 발효·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을 칭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에는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 유박, 기타 식물성 유박), 미강유박, 혼합유박, 가공계분, 혼합유기질,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유기 복합, 혈분 등이 있습니다.

두 비료 모두 유기자원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혼동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원료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채종유박 비료에는 반드시 채종유박 만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해성분이 함유될 위험성이 적고 부속이 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 하지 않습니다.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그러나 퇴비는 반드시 부숙된 것이어야 하며, 부숙되지 않은 퇴비는 암모니아 가스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악취와 작물생육 피해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여러 원료를 섞어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이 함유된 산업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유해성분 최대 허용량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식량안보와 무기질비료 자료 인용

7 이달의 주요 인사

□ 농식품부 인사 (2024.2.2일자)

○ 국장급 전보

- ▲ 정책기획관 김정주
- ▲ 농촌정책국장 김종구
- ▲ 농식품혁신정책관 이상만
- ▲ 농업정책관 윤원섭

□ 국립식량과학원 인사 (2024.1.30일자)

○ 원장 광도연 임명

8 회원사 제품 소개

□ 남해화학(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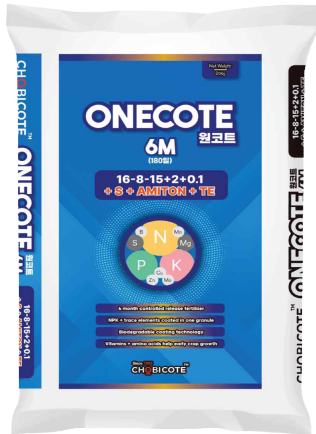
- 제품명 : 슈퍼원예S
- 성분량 : 12-6-[8]+2+0.2+6+6
- 특성 및 효과
 - 각종 원예작물에 알맞은 영양소를 모두 포함
 - CAS함유로 내병성 및 품질 향상
 - 고토, 붕소 등 미량요소 함유



비료와 식량

-2024년 2월호-

(주)조비



- 제품명 : 원코트 6M
- 성분량 : 16-8-15+2+0.1 (황, 미량요소, 아미톤, 완효성)
- 특성 및 효과
 - 비료 한 알에 NPK, 다량요소, 미량요소, 기능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그 알갱이를 100% 피복한 올코팅 완효성비료
 - 1회 시비로 비효가 5~6개월 지속되어 웃거름 생략이 가능하므로 시비 노동력이 절감되는 생력형 완효성비료

□ (주)카프로



- 제품명 : 유안비료(황산암모늄)
- 성분량 : 질소 20.5%, 유황 24%
- 특성 및 효과
 - 녹거나 굳어지지 않아 수송이나 보관하기 좋고 물과 토양에서 잘 녹으며 암모니아태 질소로서 화학반응 없이 벼에 직접 흡수되므로 요소보다 흡수율이 높음
 - 채소, 과수와 같은 유황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작물에 큰 효과

□ (주)팜한농



- 제품명 : 파워성장엔
- 성분량 : [13]-8-[8]+2+0.2 (질산태 질소, 황산칼리 함유)
- 특성 및 효과
 - 작물에 빠르게 흡수되는 질산태 질소를 함유하고 있어 작물의 초기 생육이 우수
 - 질산태 질소는 저온에서도 흡수가 좋아 저온기 생육이 우수
 - 질산태 질소는 칼슘, 고토, 칼리, 아연, 철 등 영양소 흡수를 좋게 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가능
 - 질산태 질소 함유로 하우스 재배 시 암모니아 가스 발생을 감소
 - 황산칼리를 함유하고 있어 원예작물 품질향상에 효과적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비료와 식량

-2024년 2월호-

□ (주)풍농



- 제품명 : 통린모든작물
- 성분량 : 12-5-5, 고토2, 붕소0.2, 규산6, 석회15, 유허함유
완효성비료
- 특성 및 효과
 - 작물 생육단계별 안정적인 완효성 양분공급, 생육 향상
 - 유허함유로 과수, 원예류 맛, 당도, 때깔 향상
 - 규산, 석회 다량 함유로 지력증진 및 고품질농산물 생산
 - 완효성, 저인산형태로 제조되어 이끼, 괴불 발생 예방
 - 완효성비료로 막힘없는 측조시비, 균형시비 가능

□ (주)한국협화



- 제품명 : 땅심명가
- 성분량 : 21-7-11+1+0.1(규산, 칼슘, 미량요소 함유)
- 특성 및 효과
 - 완효성 함유한 고농도 21 복합비료
 - 토양분석자료를 근거로 개발된 고농도 맞춤비료
 - 과수, 원예작 밑거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비료

□ (주)세기



- 제품명 : 원샷 감자/고구마
- 성분량 : 11-7-[8]+2+0.2(황산가리 함유)
- 특성 및 효과
 - 고토, 붕소, 유허, 석회, 규산 등 미량요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좋음
 - 황산가리가 함유되어 맛, 때깔, 저장성을 높여 주어 과실의 신선도를 높여줌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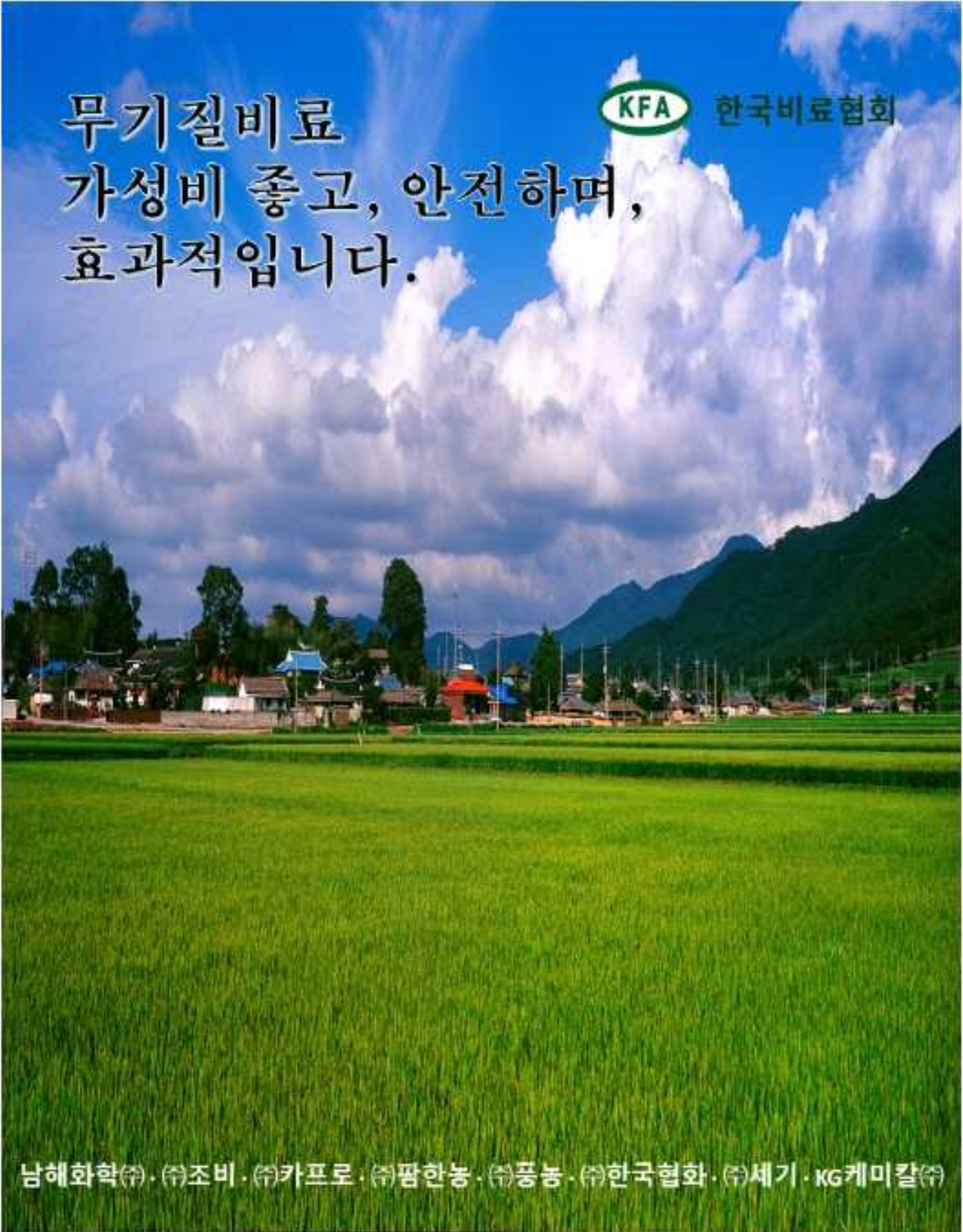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KG케미칼(주)



- 제품명 : 미생물올코팅
- 성분량 : 30-5-7+1+0.1
- 특성 및 효과
 - PLS(농약 잔류허용 기준)대비 안정성이 증가
 - 시그모이드 타입 코팅으로 생육 적기 양분 용출
 - 매끄러운 표면 + 가루 미발생으로 측조시비 탁월
 - 병 예방 미생물 10병 + 충 예방 미생물 2~3병 함유

※ 무기질비료 사용안내서 인용



출처 : 농어촌공사 농촌경관사진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